

「아프리카」 熱帶農業

韓 相 麒

國際熱帶農業研究所 (IITA),
Nigeria

要 旨

人類歷史가 아프리카 熱帶地方에서 시작되었다는 說이 있으나 아프리카 農業의 農耕歷史는 매우 짧다. 간혹 발전된 農業을 실시하고 있는 지대도 있으나 아프리카 대부분의 나라가 얼마전까지만 해도 西歐諸國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들의 식민지 정책과 부합되는 공예작물 爲主의 農業體制에서 아직도 탈피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食糧作物의 栽培技術이 매우 미진하다.

아프리카 熱帶地方의 現行 食糧生産을 爲한 農業의 특징을 든다면, 첫째로 生存을 위한 自給自足 小農 農業體制라는 점, 休閑火田農業이 成行하고 있다는 점, 混植作付體制를 따르고 있다는 점, 그리고 農業기반조성이 전혀 되어있지 못하다는 점 등이다.

아프리카 熱帶地方의 季節은 大體로 雨季와 幹季로 나뉜다. 雨季期間의 長短과 降雨量에 따라 農作物 분포와 栽培패턴이 相異하다. 비가 많이오는 地帶에서는 球根作物 특히 “카사바” “얌” 그리고 토란類 등이 많이 栽培되고 비가 짧게 그리고 적게 오는 地帶에서는 수수, 조, 옥수수과 같은 禾穀類와 동부, Peagioa pea와 같은 豆科作物이 많이 栽培되고 있다. 해발 2,000 m까지의 高地帶에서는 옥수수, 고구마 카바사, 수수, 조 등이 栽培되고 있고 그 이상의 高冷地帶에서는 감자재배면적이 최근 늘고 있다.

아프리카 土壤은 土質形成發展上 가장 오래된 것이므로 그 土壤이 環境要因에 따라 유실 소모 퇴화되기 쉬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수분을 개간하면 곧 多雨와 高溫에 의해서 土壤유실이 極甚하고 土壤 무기양분, 유기물과 유용미생물 등이 급격히 감소하여 地力이 급감한다는 사실이다.

최근 도시화로 인하여 有能한 農業人口가 急減하고 있고 西方諸國들이 무상식량 원조에 따라 農業生産을 크게 등한히 하는 경향이 점차 농후하여지고 있다. 그리고 외채상환을 위하여 各國의 농업정책이 食糧作物보다는 收益性作物의 生産에 아직도 역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食糧生産은 人口增加를 따르고 있지 못하다.

2 亞熱帶農業研究

上記의 食糧생산 저해 요인 때문에 食糧생산은 年 4%씩 감소하는 반면 人口는 平均 2.5% 내지 3%씩 增加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世界의 큰 관심사가 되어 있다. 앞으로 이와같이 불어나는 人口를 부양하기 위하여는 食糧增産技術이 어느 때보다도 더욱 緊迫히 要請되고 있다. 이 食糧增産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과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1. 食糧爲主農業으로의 전환
2. 用水開發 利用
3. 土着作物의 改良
4. 人力依存 脫皮
5. 土壤유실·지력감퇴 방지
6. 休閑火田農業의 止揚
7. 土地利用의 効率化
8. 作付體制 改善
9. 指導體制 開發 樹立
10. 農產物 流通體制 改善
11. 재해 방제
12. 農業教育研究 強化
13. 生産 incentive 부여